

구례의 천년고찰, 홍매화 꽃비 향연에 '화엄법계'

꽃이 아름다운 사찰 2-구례 화엄사(華嚴寺)



각황전 계단 너머에 핀 홍매화는 다른 고매보다 꽃빛깔이 검붉어 '흑매'라고도 불린다.

4월의 전남 구례 화엄사는 말 그대로 화엄법계다. 벚꽃과 흑매가 흐드러지게 피어 관광객들의 눈을 황홀하게 해준다. 일주문·급강문·천왕문 지나는 곳곳에 벚꽃이 만개했다. 대웅전 왼쪽 각황전 오르는 계단 너머에는 흑매가 빨강계 물감을 풀어 놓은 것 같다. 말 그대로 장관이다. 수령 300~400년으로 추정되는 화엄사 홍매화는 다른 고매(古梅)보다 꽃빛깔이 검붉어 '흑매'(黑梅)라고도 불린다.

각황전은 이 절집 중에 제일 우람한 전각(殿閣)이다. 이층 지붕까지 18m다. 각황전을 숙종 때 다시 지으면서 심은 것이 흑매다. 각황전 일층 처마보다 높게 자랐다. 10m가 넘는다.

아스팔트길 끝나는 곳에 작지만 고풍스러운 불이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리산 화엄사(智異山 華嚴寺)'라고 적힌 현판이 유독 돋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이 현판은 1988년 이 산문을 신축하면서 석전 황욱이라는 분의 글씨를 받아 건 것이라고 한다. 석전은 이 글자들을 오른손의 수전증 때문에 왼손으로 썼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기교 넘치는 다른 현판과 달리 글자들이 담백하고 유독 정직해 보인다.

천왕문을 지나니 보제루가 보였고, 1층이 막힌 채 '루(樓)'라는 명칭만을 간직한 보제루를 돌아 들어가니 그곳이 바로 화엄사의 중앙이었다. 대웅전과 각황전이 보이는 바로 그 자리. 화엄사가 그 존재 자체로서 설명하는 우주의 중심이었다.

화엄사는 다른 사찰과 달리 대웅전보다 각황전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학자들에 따르면 각황전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대웅전을 각황전과 대등하게 보이기 위해 보제루 옆으로 동선이 짜였다고 한다. 그래도 크고 웅장한 것에 더 감탄하는 우리 속세인들의 눈에는 각황전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다.

우리나라 고찰서 흔히 보기 어려운 2층 건물인 각황전은 조선 숙종 25년(1699)에 건축되었는데 불교를 팔시하던 조선 시대에 이 정도 규모의 사찰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란다. 현판 글씨는 숙종의 친필이다. 각황전은 건물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각황전의 지붕 옆 모습은 여덟 팔(八)자를 이루고 있는 팔작지붕이다. 각황전 관찰의 백미는 기둥 모

서리에 서서 고개를 수직으로 꺾으면 보이는 처마다. 그래서 사진 작가들의 셔터가 가장 많이 눌러지는 것도 바로 여기다. 처마를 단청으로 채색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나무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또한 단청 이상의 매력을 느끼게 한다.

각황전 안의 모습은 더욱 웅장하다. 밖에서 볼 때 2층 구조인 건물의 내부는 통 층 구조다. 4보살상과 30여래불상들이 시원스레 느껴지는 것은 높은 천장이 주는 시원함 때문인 것 같다.

각황전 앞마당에 있는 석등도 국보 제 12호로 지정된 문화재다. 이 석등은 높이가 6.4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 가운데 기둥을 잡고 모양으로 한 것이 특이하다. 이것은 통일신라 후기 석등에서 자주 사용되던 디자인이라고 한다.

화엄사에는 국보 패불도 있다. 정식 이름은 '화엄사영산회괘풍령'이다. 패불은 높이 11.95m, 너비 7.76m의 크기로, 석가불을 중심으로 문수보살, 보현

제35호로 지정되었다. 화엄사는 한마디로 국보 백화점이다.

글=김주필 기자 kimj4217@hyunbul.com
사진=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화엄사 템플스테이

화엄사 템플스테이는 1박2일, 2박3일 일정이 있다. 상시휴식형 템플스테이도 있는데 최대 기간은 3박4일이다. 언제든 문의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홈페이지(www.haeomsa.org)나 템플스테이 사무국(061-782-7600)으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자장율사가 세운 4사자3층탑과 석등.

각황전 현판글씨 숙종의 친필

석등, 패불, 4사자 3층석탑 등 국보 즐비

보살, 사천왕상 등이 배치되어 있다. 불괘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둥근 얼굴과 어깨에서 부드럽고 원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필선이 매우 섬세하고 치밀하다고 한다. 국보 제301호다. 각황전 뒷동산에 자장율사가 부처님 진신사리 73과를 모시고 세웠다는 4사자 3층 사리석탑도 화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위층 기단을 받치고 있는 네 마리의 사자상이다. 모두 앞을 바라보며 입을 벌린 채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고 있다. 사자들에 에워싸여 있는 중앙에는 합장한 채 서있는 스님상이 있는데 이는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의 어머니라고 전하며, 바로 앞 석등의 탑을 향해 꿇어앉아 있는 스님상은 석등을 이고 어머니께 차를 공양하는 연기조사의 지극한 효성을 표현해 놓은 것이라 한다. 이 석탑 역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

주변보기

<가볼 만한 곳>

섬진강어류생태관에는 섬진강에서 사는 민물고기를 전시한다. 산동면 원촌마을의 수락폭포는 물맛이 명소로 손꼽힌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으면 신경통, 근육통, 산후통에 효험이 있다고 전해진다. 게르마늄 온천수로 유명한 지리산온천랜드(061-783-1414)도 3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온천탕을 비롯해 찜질방, 사우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다.



<숙박>

지리산둘레길에 위치한 쌍산재(010-9644-7116)와 곡전재(019-625-8444)는 유서 깊은 한옥으로 숙박체험이 가능하다.

이밖에 오미리의 오미은하수행복마을(061-781-5225)에서는 숙박은 물론 압화 만들기 등 체험도 할 수 있다.

<식당>

산채정식과 다슬기탕은 구례를 대표하는 별미다. 주변의 백화회관(061-782-4033)은 지리산사채취한 30여 가지 나물이 반찬으



로 나온다. 구례읍내의 부부식당(061-782-9113)은 물 맑은 섬진강서 건져 올린 다슬기에 수제비를 넣은 다슬기수제비가 맛있다. 이시돌(061-782-4015)도 10여가지 반찬이 나오는 산채정식이 유명하다.

화엄사 가는 길

- 승용차-내비게이션에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지리산화엄사를 치면 된다.
- 기차-용산역에서 구례구역(061-782-7788) 수시 운행
- 버스-서울 남부터미널 - 구례 시외버스터미널 (061-780-2731) 2시간 간격, 3시간30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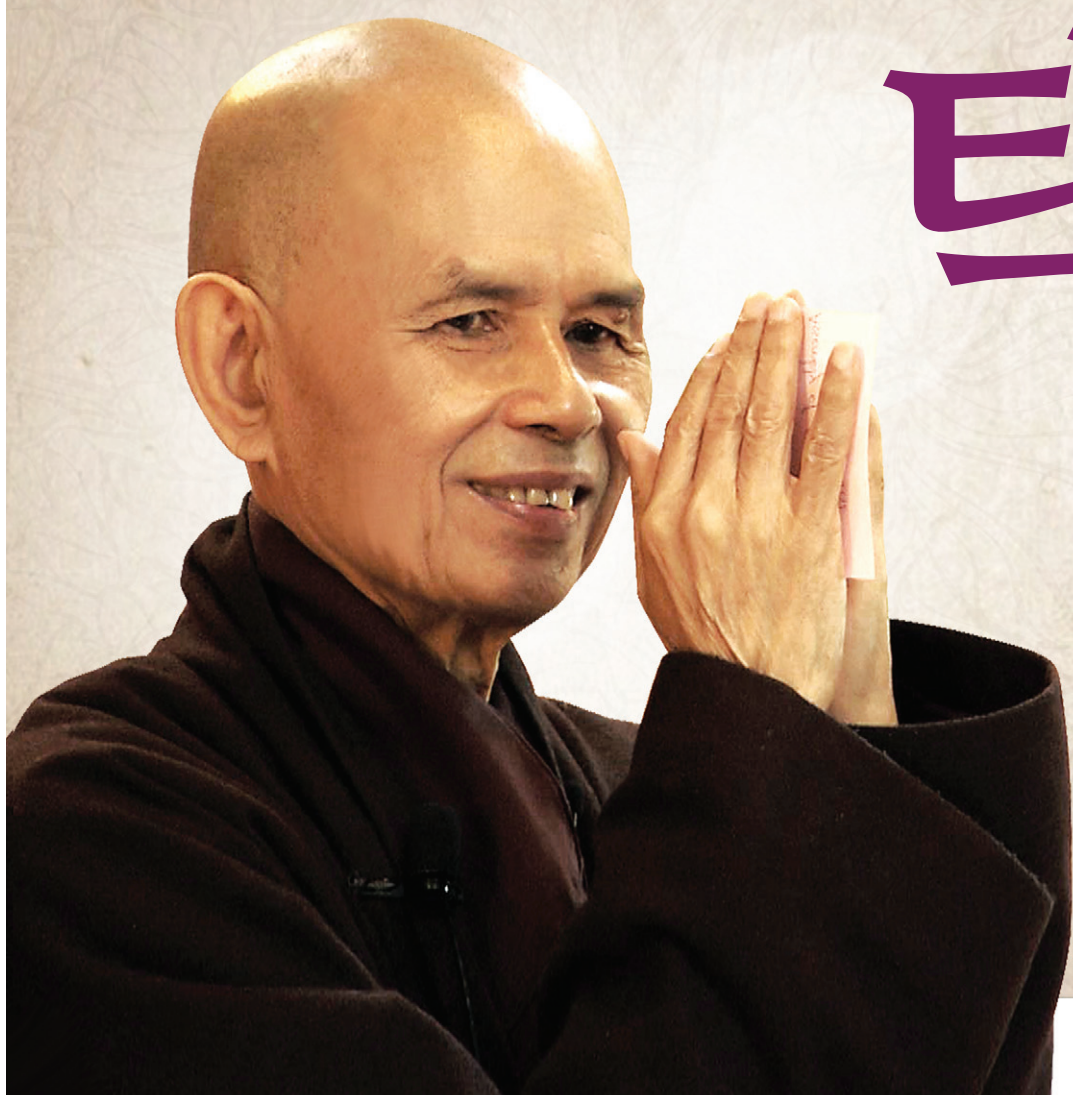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

www.tnhkorea2013.org

턱나뎡한 스님 초청강연

주제 | 멍춤, 그리고 치유



통역 | 헤민스님

장소: 잠실실내체육관

일시: 2013.5.13(월) 19:00

예매문의: 1544-1555 단체문의: 02-3270-3334

예매: 인터파크 INT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